



논문목록

- Design modifications of class II biological safety cabinet and user guidelines for enhancing safety. Stimpfel TM; Gershely EL. *Am Ind Hyg Assoc J* 1991, 51(1) p1-5
- A short-term solid sorbent determination of hydrazoic acid in air Puskar MA; Fergon SM; Hecker LH. *Am Ind Hyg Assoc J* 1991, 51(1) p14-19
- Assesment of the filtration reserve capacity of the kidney in workers exposed to cadmium. Roles HA; Lauwerys RR; Bernard AM; Buchet JP; Oversteyns. *Br J Ind Med* 1991, 48(6) p365-374.
- Paternal exposure to mercury and spontaneous abortions. Sylvaine Cordier; Francois delpan; Laurence Mandereau; Denis Hemon. *Br J Ind Med* 1991, 48(6) p375-382
- Rapid changes in concentration of essential elements in organs of rats exposed to methylmercury chloride and mercuric chloride as shown by simultaneous multielemental analysis. Hajime Muto; Masayuki Shinada; Kazuko Toruta; Yukio Takizawa. *Br J Ind Med* 1991, 48(6) p382-388
- Deposition of aluminium in tissues of rabbits exposed to inhalation of low concentration of Al_2O_3 dust. Rollin HB; Theodorou P; Kilroe-Smith TA. *Br J Ind Med* 1991, 48(6) p389-391
- Effect of cadmium on transmembrane Na^+ and K^+ transport systems in human erythrocytes. Lijnen P; Staessen J; Fagard R; Amery A. *Br J Ind Med* 1991, 48(6) p392-398
- The discovery of the association between blue asbestos and mesotheliomas and the aftermath. Wanger JC. *Br J Ind Med* 1991, 48(6) p399-403
- Respiratory findings among iron workers: results from a clinical survey in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and identification of health hazards from asbestos in place at work. Fischbein Alf; Luo Jiin DJ; Rosenfeld S; Lacher M; Miller A; Rosenbaum A. *Br J Ind Med* 1991, 48(6) p404-411
- Smoking exposure to crocidolite, and the incidence of lung cancer and asbestosis. Klerk NH; Musk AW; Armstrong BK; Hobbs MST. *Br J Ind Med* 1991, 48(6) p412-417
- Neurotoxic effects of methylene chloride: Are they long lasting in humans?. Lash AA; Becker CE; Shore M. *Br J Ind Med* 1991, 48(6) p418-426
- Asbestos and cancer: history and public policy. Castleman BI. *Br J Ind Med* 1991, 48(6) p427-429
- Lung cancer and hydrogen chloride exposure: results from a nested case-control study of chemical workers. Bond GG; Flores GH; Stafford BA; Olsen GW. *Br J Ind Med* 1991, 33(9) p958-961
- The cost-effectiveness of work-site wellness programs for hypertension control, weight loss, and smoking cessation. Erfurt JC. *Br J Ind Med* 1991, 33(9) p962-970

주요논문초록

「셸 정유회사 근로자들의 전향적 이환 감시체계」

저 자 : Tsai SP, Dowd CM, Cowles SR, Ross CE
출 처 :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991 ; 48; 155-163

1981-1988년 사이에 14,170명의 정유업 근로자들의 전향적 이환감시체계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5일 이상의 병결근자료를 셸 건강감시체계(Shell Health Surveillance System)에서 추출하였다. 연령, 성, 작업, 근무상태별로 연령을 교정한 연간 이환율과 연간 결근기간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결근율과 결근기간은 고연령자, 여성, 생산직에서 높았다. 이러한 것은 기왕의 질환과 위험요인과 관련성이 있었다. 8년동안 5일 이상의 병결근을 최소한 1회 이상을 기록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4%이었으며 총 근무일수의 52%에 해당되었다. 남자 근로자들의 경우 5종의 질병이 전체 병결근의 72%를 차지하여, 손상(25%), 호흡기질환(17%), 근골격계장애(14%), 소화기장애(9%), 심장질환(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근로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질병예방정책과 같은 노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근과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위험한 행동의 효과」

저 자 : Bertera RL
출 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1 ;
33 (11) :1119-1124

대규모 회사의 45,976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근과 건강관리 비용에 미치는 위험한 행동학적 요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건강위해평가와 건강진단자료를

평가한 단면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6가지 위험한 행동을 가진 근로자들의 결근율이 위험한 행동요인이 없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10-30%). 이러한 차이는 위험한 행동이 있는 근로자들의 질병에 의한 비용(산재보험금, 의료비 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각 위험요인에 대한 연간 질병비용은 흡연 960달러, 과체중 401달러, 과음 389달러, 과콜레스테롤 370달러, 고혈압 343달러, 부적절한 안전벨트 사용 272달러, 운동부족이 130달러이었다. 연령, 교육, 급여종류와 다른 6가지 행동요인을 통제된 결과 운동부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과잉질환으로 인한 연간 비용은 7080만 달러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증진,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인센티브,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주요 위험한 행동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적으로 카드뮴에 폭로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물내 카드뮴이 카드뮴과 β_2 -microglobulin의 요중 배설에 미치는 영향

저 자 : Tennant CJ
출 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1 :
33(11) : 1175-1179

직업적으로 카드뮴에 폭로되는 근로자중 도시의 정원에서 그들이 먹는 채소의 일부분을 키우는 영국의 Walsal시에 사는 260명에 대하여 음식물내 카드뮴이 카드뮴과 β_2 -microglobulin의 요중배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일반주민에 비하여 카드뮴의 요중배설은 이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비직업적으로 폭로되는 주민들 중 비흡연자에 있어서 요중 카드뮴 배설은 ACGIH의 Biological Exposure Index의 34%로 나타났다. 카드뮴에 폭로되는 근로자들의 생물학적 감시자료의 평가에 있어서 도시에서 생장한 식물을 섭취할 경우의 주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